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으로다.”

(시편 107:1)

샬롬!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주님의 은혜를 헤아려 봅니다.

참으로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부족한 저희를 이끄시기 위해 수많은 분들의 기도와 사랑의 동역으로 힘을 더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한 해 동안 사랑으로 함께 걸어주시고 동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2월은 성탄을 준비하며 매우 바쁜 시간이었습니다. 아직 저희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황이 비교적 자유로워, 성탄만큼은 마음껏 이웃을 초청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지역별로 가정을 방문하며 성탄송을 부르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각 가정마다 초대된 이웃과 가족들이 함께하였고, 그들에게 성탄의 복된 소식을 전하며 성탄예배로 초대할 수 있었습니다.



3일간 자정을 넘기는 시간까지 가정을 돌며 복음을 전하는 일이 체력적으로 쉽지는 않았지만, 성도들과 아이들이 함께 성탄 찬양을 부르며 가정과 초청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은 말로 다할 수 없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성탄절 축하무대는 어른과 아이를 구분하지 않고 하마리 교회 모든 성도가 함께 준비합니다.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각각 우크렐레 연주와, 댄스, 노래등을 다양하게 준비했고, 성인 남성들은 스킷과 찬양을, 성인 여성들은 부채춤과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이해정 선교사가 유튜브를 보며 부채춤을 지도하여 *Amazing Grace*(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음악에 맞춰 발표했는데, 많은 분들의 환호와 박수를 받았습니다. 약간의 실수도 있었지만 9월부터 정말 열심히 연습해 왔기에, 모든 자매들에게도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복과 부채를 여러 분의 손을 통해 보내주신 덕분에, 아름다운 한국 전통무대를 통

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할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500명을 예상하여 음식을 넉넉히 준비하고, 아이들 선물은 150개를 준비했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다음에는 청소년과 아기들 것까지 포함해 약 400개는 준비해야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또한 선배 목사님께서 여성들을 위한 로션을 보내주셔서, 여성들에게까지 귀한 선물을 나눌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판카즈 목사의 부모님과 친인척들 또한 모두 참석하셨습니다. 성탄 전에 직접 가정을 방문해 초대했는데, 지난해 오셨던 이모님들 중 몇 분은 올해도 참석하기 위해 미리 준비하고 계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큰 감동과 감사를 느꼈습니다. 특히 이모할머니께서 예배를 마친 후 판카즈 목사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를 받으시는 모습은 참으로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께서 성탄 음식에 드는 비용을 본인이 헌금하겠다고 하셔서, 500명 이상의 음식을 넉넉히 준비해 모두가 풍성하게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풍성하게 채워진 성탄 가운데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들었고, 이후에도 계속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이들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만지시고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37)

이제 다가올 새로운 한 해를 소망 가운데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또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일하실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모든 동역자 여러분도 소망과 기대로 새해를 맞이하시며, 주님의 은총과 보호하심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샬롬

북인도에서

판카즈 카필라 · 이해정 드림